“시비분별 다 끊어진 마음이 부처님 마음”

동명불원, 신임 주지 개당법회 봉행

교선사 원순 스님 주지 취임
불자 위해 쉬운 말 경전 풀이
오랜 주지 공석 안타까워 결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주지 원순 · 이하 동명불원)이 6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원순 스님의 취임식과 개당법회를 봉행했다.

개당법회는 신임 주지가 처음으로 사찰에서 설법하는 법석이다. 이번 개당법회를 통해 주지 원순 스님은 대중설법을 통한 경전 안내로 불자들의 신행과 수행을 돕겠다고 서원했다.

법회에는 주지 원순 스님과 김경조 동명불원 이사장, 안수근 이사, 이욱태 이사, 조성두 이사, 성재곤 신도회장, 이상수 신도회 부회장, 이원옥 신도회 부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당선인, 조상진 부산시의원 당선인, 성현달 부산시의원 당선인, 박미순 남구 구의원, 이숙련 前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취임식에 이어 개당법회로 이어졌다. 취임식은 개식과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내빈소개, 신임 주지 수행이력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불자들은 꽃다발을 증정하며 환영했으며 김경조 이사장과 성재곤 신도회장이 축사를 통해 주지직을 수락한 원순 스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개당법회는 청법가와 입정 이후 원순 스님의 법문으로 마무리 됐다.

원순 스님은 “무엇보다 주지라는 소임으로 불리기가 좀 어색한 면이 있다. 저를 마주할 때면 스님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경전을 그동안 쉬운 말로 풀어내는 불사를 해왔다. 대중들에게 앞으로 설법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6월 29일 부산동명불원 개당법회에서 원순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원순 스님은 법문에서 “12분별이 사라지고 근심과 망상이 사라진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다. 일체 시비분별이 다 끊어진 마음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다.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빛을 가지게 되고 실상을 드러내게 된다”며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 수가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드러내는 그런 힘이 부처님의 지혜이며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하는 힘이다”고 당부했다.

김경조 이사장은 “새롭게 취임하신 원순 스님은 그동안 동명불원으로 와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정중히 사양하셨다. 주지 스님의 공석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결단을 내려주셨고 오늘 법석을 열게 되었다”며 “우리 사찰의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주지 스님을 모시고 앞으로도 저희 동명불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재곤 신도회장은 “주지 공석의 장기화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원순 스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지 원순 스님은 한문을 어려워하는 불자들을 위해 우리글로 경전을 풀어쓰는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다. 주지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화합과 지역사회의 전법과 포교의 중심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순 스님은 198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3년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정혜사, 성전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94년 운성 스님으로 부터 강맥을 이어받았고 2001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행운문화상 역경부문을 수상했으며 2005년 조계종 총림 방장 보성 스님으로부터 전등 율맥을 이어받았다. 현재 조계종 편집위원,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 어록을 강의 중이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인월암에서 안거 수행 중이다. 원순 스님은 한글 역경에 매진하며 〈함허 스님 금강경〉,〈육조 스님 금강경〉, 〈치문〉, 〈돈황법보단경〉, 〈진심직설〉 등 다수를 번역했다.

범어사, 선지식 6인 특강 시작

6월 28일, 태원 스님 ‘정토사상’ 특강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6월 28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을 주제로 열리는 선지식 초청 특강을 시작했다.

태원 스님<사진>의 ‘정토사상’ 을 주제로 시작된 첫 강의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자들이 교육관 강당을 가득 메웠으며 대면으로 만나는 선지식의 특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힘겨웠던 시간을 위로하고 대면으로 만나는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법열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첫 강의를 시작으로 이후 유식과 선사상, 화엄 등 주옥같은 강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느꼈던 아쉬움을 마음껏 해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前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태원 스님은 정토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당부하며 정토의 의의, 제불정토설, 정토교의 위치 등 설명을 이어갔다.

태원 스님은 “정토사상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사랑하기를 바란다”며 “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고 내세의 꿈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대면으로 만나는 특강, 그리고 행복’ 은 6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6주간 매주 화 · 수 · 목요일 오후 2시에 범어사 선문화관교육관에서 진행된다. 태원 스님에 이어 원오사 주지 원오 스님이 ‘유식사상-마음의 본체를 이해하다’ 를 강의하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선사상-중국선과 한국선의 양상과 특징’ 을 설명한다.

이어 해인사 강주를 역임한 수진 스님이 ‘화엄사상-최고의 경전 대방광불화엄경의 이치를 읽다’ 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원창 스님이 ‘계율-계율의 의미와 지계정신’ ,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을 역임한 월암 스님이 ‘선과 수행-조계종의 근간 간화선의 모든 것’ 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마무리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봉 대종사 40주기 추모 다례재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총 3300만 원 장학금 전달

경봉문도회(문장 원명)가 6월 25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 대종사 제40주기 추모다례재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前 영축총림 방장 원명 대종사를 비롯해 경봉문도회장 무애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추모 다례재는 종사영반, 헌향 및 헌다, 육성 법문, 장학금 전달, 인사말씀 등으로 진행됐다.

문도를 대표해 원산 스님은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화합하고 단결해 스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종사의 추모 다례재를 맞아 가르침을 새기고 경봉장학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도록 더욱 뜻을 모아 정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봉문도회는 이날 참석 대중을 위해 경봉 스님의 시문집 〈원광한화〉, 일화집 〈뭐가 그리 바쁘노〉, 소현 스님의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집 ‘경봉 선사의 선시 작품 연구’ 등을 법공양했다.

한편, 이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장학금 수여식’ 도 개최했다. 장학금은 통도사 재적 스님 가운데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과정 도운, 관음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에 재학 중인 스님 21명에게 100만 원씩 2100만 원, 통도사승가대학 학인 스님 8명에게 50만 원 씩 400만 원, 통도사 보광선원,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비와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 지원금 8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쟁 비극 다시는 없기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UN전몰장병 합동위령재 봉행

6월 24일, 유엔기념공원 추모관
종교지도자·신자 200여 명 참석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가 6월 24일 유엔기념공원에서 ‘2022 유엔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위령재’ 를 봉행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매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11개국 2300여 명의 전몰장병과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위령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묵념 △분향 및 헌화 △추도사 △종단별 추도식 △평화합창단의 추모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으며, 7대 종교지도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박차귀 공동회장(천도교 여성회본부 회장), 황성민 목사(부산지방경찰청교회) 등 종교지도자와 신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정산 스님은 추도사에서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현재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소중한 자리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한마음으로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부산 종교인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종교 학술 세미나, 공개강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서로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각 종단 유적지 순례, 종교인평화예술제, 생명존중 및 환경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대학입시전략 통한 포교 성료

2차 설명회, 8월 7일 오후 2시 개최

홍법사(주지 심산)가 6월 26일 경내 교육관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홍법사는 이번 대학입시 설명회에서 전문가의 정보와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입시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사찰이 ‘수능기도’ 라는 기도처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설명회에는 100여 명의 학부모가 동참했으며 대부분 불교와 인연이 없는 일반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복잡해진 입시전형으로 인해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님이 내 자녀의 성적에 맞추어 갈 수 있는 대학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사찰에서 열려 생소하기도 했지만 불교가 좀 더 친숙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한나래평생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대치동 입시전문 컨설턴트로 알려진 황진환 아름미래 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의를 담당했다. 변화난측(變化難測)을 주제로 변화가 많은 입시상황을 설명하고 2023학년 대입전형의 변화와 전형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주지 심산 스님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홍법사는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한다. 종교가 단순히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고자한다”고 말했다.

2차 설명회는 8월 7일 오후 2시 홍법사 교육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한나래평생교육원 사무국(010-8794-0514)으로 성명, 성별, 연락처, 학년, 주소를 문자로 남기면 자동 신청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나누우리, 미얀마 난민 어린이 긴급구호

6월 15~20일, 영양제 및 의약품 등 전달



국제구호단체 (사)태고종 나누우리(이사장 만우, 이하 나누우리)가 6월 15일부터 20일간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 매솟(Mae Sot)에서 난민 어린이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매솟 난민촌에는 2500여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누우리는 난민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포함한 의약품과 먹거리, 옷 100여 벌을 전달했으며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라면 200상자(6000개), 운동화 100켤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뱃지 500개를 함께 전달했다. 또 어린이 구호성금 5000달러를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의 두와라시 라 대통령 대행은 친서를 나누우리 이사장에게 전달하며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들과 민툰(Mintoon)국민통합정부 국방심의관, 위(Yee)아동복지담당 사무관, 보급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나누우리와 함께했다.

만우 스님은 “대한민국도 40여 년 전에 많은 국민들의 단결된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기에 미얀마의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나누우리 회원들이 마련한 정성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민툰 국방심의관은 “지난해에도 나누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지원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따뜻함을 선사해주셨다. 미얀마 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나누우리는 지난해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 구입비 1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두와라시 라 미얀마 대통령 대행이 친서와 함께 초청장을 보내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환경연대 자연정화 활동



영남알프스 신불산 일대서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와 전국농인불자모임(지도법사 일원)이 6월 26일 신불산 일대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정화봉사활동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부터 신불산 홍류폭포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진행됐으며, 정화활동에는 상임대표 천도 스님, 일원 스님, 농인불자 및 임원, 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천도 스님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보다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하다. 욕심을 줄이고 채식으로 소비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나눔이며 봉사이다”며 “불자 농인은 손으로 언어를 전한다. 오늘 그 손으로 자연을 보듬는 아름다운 활동도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비두손회 지도법사 일원 스님은 “오늘 활동은 농인 분들에게 함께 자연을 보호함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며 “많은 분들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